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VICTORY

가제 : 빅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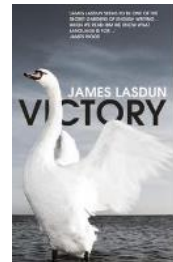
저자 : James Lasdun

출판사: Jonathan Cape

발행일: 2019년 2월 7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상업소설



- * “현대사회의 모습이 가득 담긴 두 편의 뛰어난 중편. 놀랍도록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강렬한 이야기” – 「스펙테이터」
- * “인간의 심리를 법의학자처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능력, 생생한 대화,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유려한 문장까지, 작가 특유의 장점이 결합된 책” – 「리터러리 리뷰」

사랑의 감정보다 열정, 욕망에 휩싸여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다 잊은 사람들, 눈 딱 감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저렇게 자제력이 없을까, 하고 혀를 끝끝 차는 경우가 많지만 과연 그런 욕구를 직접 느끼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더욱이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젊은 청춘도 아니고,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중년 나이에 소위 ‘불’로 묘사하는 그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힌다면? 작가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이 느껴지는 두 편의 중편소설을 통해 비이성적인 욕구와 충동의 한가운데 서 있는 현대인들, 특히 중년 남성의 욕망과 죄책감, 사랑과 증오, 우정과 배신을 살살이 해부한다.

<깃털에 덮인 영광(Feathered Glory)>라는 제목의 첫 번째 소설은 사립 초등학교 교장인 리처드가 자신을 찾아온 오랜 친구의 무모한 결심을 듣고 훈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리처드의 친구는 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가정이 있는 여자에게 폭 빠져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자친구, 그리고 자식을 두고 집을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리처드는 기겁하며 아침 조례를 떠올리게 만드는 말투로 1차원적인 욕구에 그리 쉽사리 굴복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한다. 그러나 친구는 당당히 훈계하는 리처드의 결혼생활이 썩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그렇듯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부부 관계임을 잘 알기에 그 말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친구의 어리석은 충동에 혀를 차던 리처드는 사실 아내 새라와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잠시 한 눈을 판 적이 있었다. 잠깐의 ‘불장난’으로 끝났지만 그 뜨거운 감정은 내내 리처드의 가슴 한 칸

에 남아 있었는데, 꺼진 줄 알았던 그 불씨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 결혼 직전에 만났던 그 연인이 가까운 곳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남편이 원리원칙대로 사는 꿈은 사람임을 철썩 같이 믿었던 새라는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해주는 봉사활동에 폭 빠져 살면서 쓸쓸한 삶의 위안을 얻던 중 컨퍼런스에 간다고 떠난 리처드의 차가 이웃집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이중생활을 눈치챈다. 그 즈음 다친 백조를 집에까지 데려올 만큼 열심히 간호하면서 새삼 느낀 사실들, 그리고 수십 년을 한 집에서 함께 살고도 남편을 그토록 몰랐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새라를 덮치고 두 사람, 그리고 백조의 삶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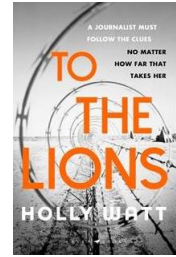
두 번째 이야기 <판의 오후(Afternoon of a Faun)>에서 이름 없는 화자는 영국에서 TV 사회자로, 기자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 마르코로부터 난감한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한 여성이 회고록에 무려 40여 년 전인 1970년대, 카리스마 넘치는 언론인이었던 마르코가 자신을 유혹해 벨파스트의 한 호텔에서 강간했다고 고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줄리아라는 이 여성은 화자도 한 때 잘 알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십대 시절 짝사랑했던 누나였다. 마르코처럼 영국 출신인 화자는 화가였던 엄마, 유명 건축가였던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건너왔는데 당시 엄마의 제자였던 줄리아는 혈기왕성한 십대 소년을 잠 못 들게 했던 이상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그의 성추행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녹음이며 기록들이 공개되던 2016년 미국을 배경으로, 작가는 줄리아의 고발은 터무니없는 모략이며 합의하에 사랑을 나눈 것이라고 토로하는 마르코의 주장과, 자신이 기억하는 줄리아의 이미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화자의 시선을 가만히 따라간다. 그 회고록이 그대로 세상에 나올 경우 이미 퇴색되고 무너진 자신의 명예와 입지가 완전히 가루가 될 것임을 직감한 마르코는 끈질긴 설득 끝에 줄리아가 회고록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하지만, 철저히 중립을 유지하자고 결심한 화자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줄리아와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향해 나아간다. 영문학 교수인 화자가 시작한 진실게임에는 사회적 기준과 규범이 시대에 따라 얼마나 판이하게 변화하는지, 어떤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가에 관한 심오한 고찰이 개성 넘치는 인물들의 다소 코믹한 항변과 말 속에 깊이 녹아 있다.

두 편의 소설 모두 학교 선생님이 직업인 중년 남자가 핵심 인물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진실이 주목받고 인정받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다”는 대사처럼 두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일’과 ‘그렇다고 믿는 일’의 간극이 가져오는 불안과 갈등을 그 간극을 만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함께 절묘하게 묘사한다. 사회적 권력과 욕망의 충돌을 날카롭게 관찰한 재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임스 라스던(James Lasdun)은 런던에서 태어나 현재 뉴욕에 살면서 콜롬비아 대학교 문예창작 교수 겸 소설가, 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The Fall Guy』, 『The Horned Man』 등을 썼다. 시집으로 맨부커 상 후보에 선정된 경력이 있으며 LA 타임즈 상, T. S. 엘리엇 상 결승에 올랐다. U.K./BBC 단편소설상을 수상했다.

제목 : TO THE LIONS
가제 : 사자의 입 속으로
저자 : Holly Watt
출판사: Raven Books
발행일: 2019년 2월 21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추리/스릴러



- * “완전히 몰입해서 읽었다. 숨을 멈추게 하는 스릴과 함께 너무나 충격적인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소설” - 『A Treachery of Spies』의 작가 만다 스캇
- * “지금까지 읽은 범죄 소설 중 가장 끔찍한 컨셉을 다루면서도 아주 멋지게, 비극적으로 잘 그려냈다.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부여하는 가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 『Little Deaths』의 작가 엠마 플린트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 넘는 인간의 악행, 가장 어둡고 잔인한 본성이 저지른 거짓을 세상에 드러내는 탐사 기자가 또 한 건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친다. 정치인, 기업가 등 권력과 돈을 거머쥔 인물들의 실상과 애써 감추어온 비밀을 파고드는 기자로 <더 포스트>지의 스타가 된 케이시 베네딕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며칠만 이어지면 지루해서 못 견딜 만큼 늘 새로운 사건에 목이 마른 열혈 기자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지친 군인들과 귀청이 떨어져라 울리는 사이렌 소리로 꽉 채워진 아프가니스탄, 총리의 아내를 쫓아 간 웨일스 가톨릭의 본거지 레크섬, 영국 여행객들로 만석이던 여객기가 깊은 산중에서 사고로 추락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카자흐스탄, 그리고 도쿄, 예루살렘, 부에노스아이레스, 워싱턴, 상하이,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델리까지.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어느 새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가고 있을 정도로 케이시는 열성적으로 사건을 쫓아다녔다. ‘흥미로운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는 모토를 지니고 살아온 케이시는 거대한 기업 비리를 다음 뉴스 후보로 놓고 잠입 취재를 벌이던 중 도저히 믿기 힘든, 그리고 절대 모른 척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이미 수도 없는 사고 현장과 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해온 케이시도 온 몸을 떨게 만든 단 몇 마디의 대화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곳으로 케이시를 이끈다.

시작은 코리움이라는 거대 기업이 리비아에서 시작한 정치적 거래에 관한 조사였다.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 들어갈 석유를 남미에서 사들이는 곳, 밀이 채 익기도 전에 사들인 후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는 곳, 마찬가지로 케냐에서도 커피 열매가 열리기 전에 대다수의 농장을 휘어잡고 원두를 사들인다는 점에서 전 세계 현대인들의 일상에 어쩌면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코리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원자재와 원재료를 주로 거래해온 덕분에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케이시가 속한 <더 포스트>의 탐사 취재팀은 코리움이 최근 리비아를 새로운 석유 공급지로 눈 여겨 보다가 그곳의 위태로운 정치적 상황을 잘 활용

해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취재를 시작했다. 잠입 취재는 소수에게만 알려진 비밀 정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의심 많고 눈도 예리한 자들을 안심하고 속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케이시는 28살이라는,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이미 자신만의 기술을 확립했을 정도로 노련한 기자가 되었다. 곳곳에 치밀하게 마련해둔 정보원들 덕분에 런던 피카딜리 인근의 적당히 시끄럽고 적당히 조용한 바에 코리움의 간부들이 평일 저녁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러 들른다는 사실을 알아낸 케이시는 한 잔 하러 들른 직장인 차림으로 바를 찾아간다. 젊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입구 쪽을 지나 작은 댄스 플로어가 마련된 뒤쪽으로 들어간 케이시는 고무잡잡한 피부의 코리움 대표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모인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합류한다. 그런데 남자들이 잠시 춤에 푹 빠진 사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 기다리던 케이시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대화에 눈이 번쩍 뜨인다. 억양으로 보아 미국인이 분명한 남자와 프랑스어를 섞어 쓰는 다른 남자가 반쯤 취한 음성으로 떠드는 소리였다. ‘정말로 했대?’ ‘그렇다니까. 언덕 같은 곳, 높은데 올라가서 정말로 썼대. 바로 난민 캠프 근처에서.’ 워낙 청력이 좋고 대화를 엿듣는 실력이 탁월한 케이시는 두 사람의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난민들이 불법으로 모여 지내는 곳에 가면 총 같은 무기를 돈만 주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걸 들고 높은 곳에 올라 게임을 하듯이 ‘표적’을 정하고 쏘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게다가 들은 대로라면 저 두 사람이 아는 누군가가 그 일을 했다는 소리였다.

기겁한 케이시는 바로 다음 날 탐사 취재팀에 자신이 들은 이야기와 몰래 촬영해온 사람들의 사진을 공유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누가,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르는지,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알아내야 한다. 케이시는 당장이라도 취재를 시작하려 하지만, 자칫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더 포스트> 측은 쉽게 취재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문 먹이는 절대 놓지 않는 케이시는 뜻을 함께 한 선배의 지원을 받아 추가 취재를 벌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아낸다. 한 달쯤 전, 자신이 살던 런던 시내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마일로 뉴버리라는 기업가의 죽음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진다는 ‘인간 사냥’과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단서를 찾은 것이다. 사업차 리비아를 드나들던 마일로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데다 자살 당시 사업이 한창 큰 수익을 올리던 때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유서 한 장, 메시지 하나 남기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여러 소문이 무성했다. 마침내 취재를 허락받은 케이시는 진실을 쫓아 생트로페 해안으로, 리비아의 외딴 섬으로 떠난다. 코리움의 대표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비밀 모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모든 신분을 위장하고 장기간 공들여 노력한 끝에 그 모임의 회원들과 절친한 친구가 되는데 성공한 케이시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만행의 끝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난민 캠프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윤리와 도덕의 딜레마를 무섭도록 날카롭게 집어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홀리 와트(Holly Watt)는 「선데이 타임스」,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에서 탐사 취재기자로 활동해 왔다. 리비아, 레바논, 요르단 등에서 주로 난민 실태를 취재했으며, British Press Award에서 여러 분야의 저널리스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제목 : MOTHER

가제 :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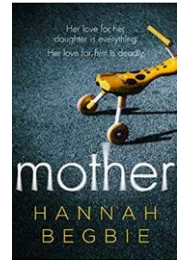
저자 : Hannah Begbie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8년 7월 26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의료/가족소설



- * 이탈리아 판권 계약(올해 9월 출간 예정) / 4자 경매를 통해 TV 판권 계약 -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크라운(The Crown)> 각본가 참여 예정
- * 로맨스소설가협회(RNA) 신인 작가상 수상작
- * “흡입력 있는 강렬한 소설. 엄마로서의 삶과 여성으로서의 삶의 균형에 관한 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 소설가 카멜 해링턴(Carmel Harrington)

9개월간 뱃속에 품고 기다린 것을 넘어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린 소중한 아이가 아직 마땅한 치료법도 없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는 어떤 심정이 될까? 앞으로 그 아이를 보살피고, 그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에 빠진 사람들의 선택을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 작가는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희귀 유전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엄청난 변화와 혼란이 그대로 담은 이 데뷔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위험한 일,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일단 살기 위해 다 놓고 도망가는 본능이 있고, 맞서 싸울 것인가 냐다 도망칠 것인가 고민하는 이런 반응 특성은 ‘투쟁-도주 반응’이라는 명칭에서도 이미 그 절박한 양자 선택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소설은 자신이 낳은 아이가 무조건 조심하는 것 외에 치료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은 부부가 제각기 다른 형태로 보이는 투쟁-도주 반응을 현실적으로 가감없이 보여주며 행복한 가정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이 빚어내는 두려움과 갈등,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각자의 숨겨둔 욕망과 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선택의 무게를 그려낸다.

캐스와 데이브는 연애 기간까지 합하면 10년을 함께 한 부부이자 최고의 단짝이다. 웃을 때 입가에 열게 패인 주름의 모양만 봐도 정말 웃겨서 웃는지, 예의를 지키려고 억지로 웃는지 단번에 알아채고 나중에 서로를 놀릴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라면 단 한 구석도 모르는 것이 없었다. 부부의 연을 맺고 수 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낼 때도 서로에게 가장 많이 기대고, 함께 고통을 이겨냈다. 아이는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순간 찾아온 임신 소식에 9개월을 구름 위를 걸듯이 보낸 캐스와 데이브는 별탈없이 그토록 고대하던 딸아이와 만났다. 미아는 두 사람에게 그냥 천사였다. 산부인과를 나서서 처음으로 미아를 집에 데려가던 날, 데이브는 차에 타자마자 함성부터 질러댔다. 두 사람을 꼭 빼 닮은 아이가 새 식구가 되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아이처럼 신나서 고향치는 데이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캐스는 함께 웃고, 눈물 지으며 기쁨을 만끽했

다. 이 가슴 벅찬 행복이 딱 25일만에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원래 신생아 돌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캐스는 보름쯤 지난 어느 밤, 울부짖는 미아의 모습을 보며 정확히 집어낼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집에 데려온 지 25일째 되던 날 걸려온 전화로 그 불안은 사실로 드러났다. 퇴원 전 채취한 미아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치가 ‘이상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아픈 사람들이 내뿜는 절망의 기운이 가득한 대형병원에 불려간 캐스와 데이브는 미아가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사실과 함께 주로 폐와 기관지, 체장 기능에 비정상적인 증상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며 치료법은 아직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두 사람이 각각 지니고 있던,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비정상 유전자가 모두 미아에게 갖고, 그 바람에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렸다는 자책감, 그토록 오매불망 아이가 생기기만 기다리며 힘들었던 시간의 결과가 불치병인 이 믿기 힘든 현실은 늘 유쾌하고 무엇이든 함께 씩씩하게 해결했던 두 사람을 무섭게 덮쳤다. 데이브는 평소에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늘 그랬듯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매일 미아에게 먹여야 하는 약과 약 먹일 시각, 먹이지 말아야 할 음식,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마구 정리하면서도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를 주문처럼 되뇌었다. 처음 소식을 접한 직후에 외락 덮친 충격이 조금 가라앉은 뒤, 캐스는 훌쩍 도망치고 싶은 감정에 사로잡혔다. 여권과 모아둔 돈만 조금 챙겨서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 뉴스에 잇을 만하면 나오는, 자식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무책임한 엄마가 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곧 이성을 되찾은 캐스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미 이 믿기 힘든 현실을 겪은 사람들의 조언과 격려도 절실했다. 데이브와는 더 이상 미아의 병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미아 걱정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서서히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졌고 데이브는 친구들과의 술 모임이나 야구에 빠져 사는 것으로 틈만 나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으려고 애썼다. 기댈 곳을 찾던 캐스는 ‘낭포성 섬유증 환아를 키우는 부모들’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혼자 그곳에 가보기로 결심한다. 감염에 극도로 약한 병의 특성상 가까이 얼굴을 대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체가 닿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하는 이 독특한 모임의 일원이 된 캐스는 그곳에서 가장 바라던 말, 가장 기대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 십대 딸이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리처드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말기는 대신 최신 연구결과와 새로운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치료나 환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다. 리처드와의 대화로 정말 오랜만에, 너무 절실했던 희망과 에너지를 가득 얻은 캐스는 점점 더 그에게 기대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국 그와 부적절한 연인이 되고, 모임의 핵심 멤버가 되는데 이어 방송에 나가 낭포성 섬유증 환자와 가족들의 대변인을 자처하기 시작한 캐스의 선택은 미아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캐스는 살기 위한 또 다른 싸움과 직면한다.

<저자 소개>

한나 벅비(Hannah Begbie)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정치학과 예술사를 공부하고 ‘유나이티드 에이전트(United Agents)’에서 15년간 BAFTA 수상자 등 수많은 작가, 코미디언의 에이전트로 근무했다. 둘째 아들이 소설에 등장하는 병을 진단받은 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 MY LIFE AS A RAT

가제 : 시궁창 속의 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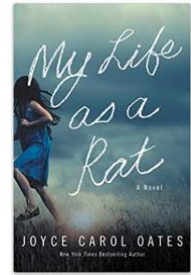
저자 : Joyce Carol Oates

출판사: Ecco

발행일: 2019년 6월 4일

분량 : 416쪽

장르 : 스릴러



★ 프랑스 판권 계약

★ “작가의 문장에는 희망과 절망, 사랑을 맴도는, 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담겨 있다” - 「가디언」

★ “가장 일관되게 독창적이고, 놀랍고, 호기심과 창의력이 담긴 글을 쓰는 작가” - 『Gone Girl』의 저자 Gillian Flynn

가족 간에 의리를 지키는 것,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어느 길로 가야 후회가 적을까? 어느 쪽이든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오빠, 언니들로 북적대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열두 살 소녀 바이올렛은 너무 어린 나이에 극명히 갈린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 선택은 바이올렛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린다. 인기 작가 조이스 캐롤 오츠가 몇 년 전 단편으로 발표했다가 장편으로 다시 쓴 이 소설은 비극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온 집안의 귀염둥이에서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은 시궁창 생쥐가 되어버린 주인공의 처절한 인생을 인종차별, 성범죄, 여성 혐오와 같은 굵직한 주제와 함께 보여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와 배신, 의리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아일랜드 혈통인 바이올렛의 아버지는 건장한 체격과 다혈질 성격 탓에 ‘되도록 건들지 말아야 하는 사람’으로 통했다. 젊을 때는 모두가 입을 모아 미모를 칭찬했지만 아이를 일곱 이나 낳느라 몸매도, 건강도 망가진 엄마는 엄하게 훈육하는 것을 부모의 의무라 믿고 있는 남편에게 점점 커가는 아이들이 대들지 못하게 하려고 설득하느라 늘 바빴다. 하지만 7남매의 첫째이자 장남인 제롬 주니어와 셋째이자 둘째 아들 라이오넬은 부친의 불 같은 성미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고등학생이 되어 덩치까지 커지고 나니 부모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중학생 시절부터 나이 아가라 남부의 작은 마을 주민들을 놀라게 만든 크고 작은 사건들에 빠짐 없이 끼어 있었던 이 케리건 집안의 두 아들이 그저 유독 말썽을 많이 부리는 골치 아픈 심대를 넘어 ‘범죄자’, 그것도 살인자가 될 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1991년 11월의 어느 토요일 밤에 사건을 터지고 말았다. 언니와 함께 쓰는 2층 방에서 잠들었던 바이올렛은 자정이 넘은 시각, 부엌 쪽에 있는 뒷문으로 제롬 오빠와 라이오넬 오빠가 들어와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낄낄대더니 곧 이를 악물고 울기 시작한 두 오빠는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선 바이올렛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비도 안 오는데 다급히 물에 비벼서 뺨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옷, 온통 젖어 있는 오빠들의 머리와 얼굴에서 바이올렛은 뭔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작은 마을은 조간 신문 1면에 실린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흑인 청소년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채 길에 버려졌고 뒤늦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의 이름은 하드리언 존슨. 바이올렛의 오빠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소프트볼 선수였다.

소설은 그 날 밤, 하드리언의 머리를 내리친 야구 방망이에 대한 제롬과 라이오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바이올렛이 자칫 의도치 않은 ‘사고’로 정리될 뻔한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이 되면서 가족 전체에 버림 받고 홀로 떠돌아야만 했던 삶을 보여준다. 인종차별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시기였던 만큼, 증오 범죄인지 혹은 혈기 왕성한 십대들의 과도하지만 우발적인 다툼에서 벌어진 비극인지를 두고 피해자와 제롬, 라이오넬까지 총 네 명의 가해자들의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바이올렛이 똑똑히 보고, 들은 사건 당일 가해자들의 대화는 대충 얼버무리려던 잔인한 살인의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낸다. 가족의 결집력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로 여겼던 막내딸의 배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을 살인자로 만든 여동생에 대한 두 오빠의 분노도 극에 달한다. 정의와 상관없이 용서 받지 못할 껄스름한 아이가 된 바이올렛은 누구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자신을 괴롭히고, 이용하고, 소유하려는 수많은 남자들의 손아귀에서 한없이 농락당하며 비참한 삶을 이어간다. 시궁창을 떠도는 쥐처럼 어딜 가도 환영 받지 못하던 바이올렛은 스물일곱, 십 년이 넘어 다시 찾은 고향 집에서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법한 하드리언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된다.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에 기대기에는 연이은 학대와 폭력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며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이올렛의 이야기는 진실을 지키는 것, 선택하지 않은 혈연에 의리를 다하는 것의 가치와 사회 깊이 뿌리내린 각종 차별과 혐오 감정의 무서운 여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저자 소개>

조이스 캐롤 오츠(Joyce Carol Oates)는 미국 국립 인문학 메달, 내셔널 도서비평가협회 공로상, 내셔널 북어워드 등을 수상한 작가로 풀리처 상 후보에도 올랐다. 대표작으로는 베스트셀러이자 내셔널 북어워드 후보로 선정된 『We Were the Mulvaney』, 『Blonde』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2005년 페미나 상(Prix Femina) 수상작 『The Falls』 등이 있다.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 인문학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NON-FICTION

제목: FLEX

가제: 유연한 사회생활

(부제: 현대 여성을 위한 안내서)

저자: Annie Auerbach

출판사: HQ

발행일: 2019년 4월 18일

분량: 224 페이지

장르: 자기계발



*** 보다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여성이 업무와 삶의 생산성,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 책 - 급하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방식과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유연성을 찾는 법**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들 가운데 전업 주부가 아닌,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여성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월급만 빼고 다른 건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서글픈 우스개소리처럼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 활동을 해서는 집값이며 생활비,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을 다 감당하기 힘든 세상이 된 것도 이유겠지만, 여성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인식의 변화도 큰 몫을 했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한 편에 아직도 먼 옛날부터 오랫동안 여성의 어깨에 얹혀진 ‘사회적 역할’이라는 굴레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낡은 시스템은 아직 곳곳에 건재하고, 대부분 남성이 지배하며 남성들에게 맞게 구축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그 시스템이 굴러가도록 만들어진 규칙을 입장도, 상황도 전혀 다른 여성들이 무작정 따라야 한다. 그 결과, 일하는 여성의 모습은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정신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존재처럼, 회사에서 욕먹고 집에서도 욕먹는 사람이 된 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개인적인 성취와 발전’을 선택했으니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일까? 왜 여성은 늘 시간에 쫓기고 해야 할 의무에 짓눌려서 눈치 보면서 일해야 할까?

20년간 사회 생활을 하면서 파트타임, 프리랜서, 원격 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해본 저자는 이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현실을 타개할 만한 방법을 제시한다. 아침 9시부터 5-6시까지 고정된 출근 시간, 여성에게 당연한 듯이 드리워진 사회적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여성 개개인의 생활 패턴과 환경, 상황에 맞게 확 바꾸는 요령과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일터와 직장 여성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은 모순된 상황을 지적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식을 여성이 먼저 나서서 무너뜨리고 당당히 변화를 이끌도록 독려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앞장서서 작지만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 여성들의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된다. ‘일단 이번만 넘기자’는 생각으로 기계적으로 떠

안은 부당한 처우와 환경이 빚어낸 악순환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여성으로 한정 짓지 않더라도, 유연성은 모든 직장인의 ‘번아웃 신드롬’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유연성 없이 정해진 틀을 고분고분 따르도록 하는 시스템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해친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젊은 세대가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더 강력히 추구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기만 하던 시대는 지나갔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기업이 급변하는 문화적 트렌드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에 맞게 사업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익힌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하여,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 정신과 신체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키워서 일관된 방식이 아닌,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남들이 제시한 규칙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우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여러 패턴을 꼼꼼하게 파악한 뒤 일하고, 생활하고, 돈 벌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방식에 개개인의 취향, 선호와 독특한 재능을 크게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다.

<목차>

유연성이란 무엇일까
마음을 유연하게
일을 유연하게
가정을 유연하게
유연성과 몸
미래를 유연하게
맺음말

<저자 소개>

애니 아우어바흐(Annie Auerbach)는 업에 Starling의 공동 창업자이자 컨설턴트, 강연자로 활동 중이다. 지난 15년 동안 브랜드 전략과 개선 분야에서 나이키, 구글, 유니레버 등과 함께 일했다.

제목 : THE SCIENCE OF RICK AND MORTY

가제 : 릭과 모티의 과학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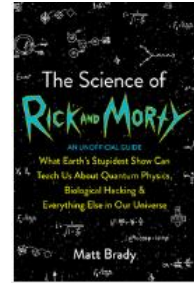
저자 : Matt Brady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분량 : 288쪽

장르 : 교양과학



*** 폴란드 판권 계약**

*** 카툰 네트워크(Cartoon Network)에서 큰 인기를 모으며 시즌 4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명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대중과학서**

동물을(가능하면 인간도) 더 지능적인 생명체로 만들 수 있을까? 혹시 지금 우리가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로선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아닐까? 우리가 아는 현실과 시간 외에 또 다른 시간대가 존재한다면, 다른 시간대로 이동할 수도 있을까? 바퀴벌레의 뇌 기능을 화합물질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상상력을 머릿속에만 두는 대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미국의 케이블 방송 ‘카툰 네트워크’에서 벌써 4번째 시즌이 시작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과학 시리즈 ‘릭과 모티의 과학’의 주인공들이다. 성인용 SF 시트콤으로 제작된 이 시리즈는 주제 못할 상상력을 지닌 노인 과학자 릭과 착하고 다정한 릭의 손자 모티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우주와 ‘다른’ 차원을 넘나들며 벌이는 기상천외한 모험을 코믹하게 그린다.

*** 단순한 궁금증으로 끝낼 수 있는 호기심들을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들과 함께 풀어나간 책**

과학 교사이자 저술가인 저자가 사람들이 과학 이론이나 개념을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떠올렸다는 릭과 모티의 이야기에는 대중문화를 트로이의 목마처럼 활용한다는 저자의 특별한 아이디어가 잘 녹아 있다. 즉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난감하지만 왠지 흥미롭다고 느낄 만한 요소를 톡 던지고 그것이 과학적인 내용인지 뭔지도 잘 모르는 채로 일단 받아들이게 한 다음 나중에 문득, 트로이의 목마 속에 몰래 설치된 비밀의 문을 열고 흘러나온 과학이 자연스레 사람들에게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갑자기 ‘혹시 우주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나 개를 산책시키다가 ‘개의 지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더 발달되며 심지어 말을 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의문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인터넷을 뒤지거나,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한다면 저자가 생각한 이 시리즈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에는 그와 같은 저자의 목표가 반영된 릭과 모티의 모험이 19개의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 암흑물질, 외계생명체, 지능의 해킹, 다중우주, 기억 이식, 뇌 이식 같은 주제들이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초소형 생명체와 평화 협상을 벌이기

위해 상대방의 몸 크기만큼 몸을 줄여야 했던 릭과 모티의 이야기나, 너무너무 싫은 가족 상담을 피하기 위해 피클로 변해야 했던 릭의 사연 등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함께 펼쳐진다.

생물학과 화학, 물리학의 전통적인 이론과 더불어 기억과 꿈의 해킹이나 인공지능, 입자물리학 등 가장 최근에 제시되고 발전한 과학 분야도 두루 포괄하여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레 던지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릭이 시도하는 각종 실험과 도전은 모두 과학에서 비롯되고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그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릭과 모티 시리즈를 원래 알던 시청자나 이들을 처음 접한 사람 모두 편안하게 즐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 외계생명체
2. 클로닝
3. 생태학
4. 진화
5. 블랙홀, 벌레 먹은 구멍, 그리고 태양계 밖의 행성들
6. 포털 건(portal gun)
7. 다중우주론
8. 왜 하필 C-137 우주인가?
9.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10. 뇌의 놀이터
11. 지능의 변화

(이하 생략, 총 1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매트 브래디(Matt Brady)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다. 교육계에서 일하기 전에는 아이스너 상(Eisner Award)을 수상한 웹 사이트 Newsarama.com을 공동 창립해서 편집장으로 일했다. 대중문화를 통해 과학을 가르치는 웹사이트 TheScienceOf.org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제목 : ELDERHOOD

가제 : 늙어간다, 우리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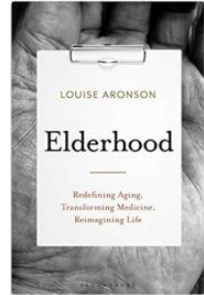
저자 : Louise Aronson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6월 11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의학/건강



- * “노인병학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과 명상이 담긴 책. 깊은 연민과 부단한 노력으로 얻은 지식, 생생한 보고를 통해 의학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받는 노인들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 “회고록, 역사서이자 사회비평서. 노인을 향한 깊은 공감과 함께 나이 드는 것이 병인 것처럼 만들려는 ‘안티에이징 산업’을 날카롭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다” - 『HEART: A HISTORY』의 저자 샌딕 재우하

나이 드는 것, 특히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가 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겁을 낸다. 딱히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60세가 넘어가면 노인, 즉 ‘늙은 사람’으로 여긴다.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 이 기준 대로라면,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난 만큼 ‘노인’이라는 분류로 최대 40여 년을 사는 인구가 대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노인, 하면 떠올리는 각종 부정적인 이미지는 늙은 사람으로 사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시대와 거의 바뀌지 않았다. 힘 없고 짐이 되는 존재, 무엇보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한 것이다.

25년 이상 노인병학 전문의로 노인 환자들을 치료해온 저자는 이 같은 모순이 만들어낸 의료계의 비극적인 현실을 이 책에서 낱알이 보여준다. 늙는 것은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은 노인들이 불필요한 치료나 전혀 효과가 없는 치료를 무분별하게 받게 만들고, 그로 인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더 큰 병을 얻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자는 사회 전체는 물론 의료계 안에서도 경시되는 노인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 역사, 과학, 대중문화, 문학에서 언급되고 다루어지는 노인과 나이 드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늙는 것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나이 드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도 아니고 무조건 미화할 수 있는 환상적인 시기도 아니며 즐거움과 경이로움이 충분히 넘치는 동시에 좌절과 분노도 가득한 시기라는 것, 그래서 이에 맞는 인식과 의학적인 치료, 사회적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현대 의학에서 병을 앓는 노인들이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저자의 이야기는 특히 깊은 인상을 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현대 의학의 대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인 환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행복과 건강보다는 당장 눈 앞에 나타나는

증상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치료법이 마구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불편한 진실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저자가 직접 치료한 환자들의 사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의사들이 저지른 실수, 그리고 무지했던 시기에 저자가 의도치 않게 저지른 실수까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돈 벌기에 급급해 하나의 산업체가 되어버리거나 기업과 손을 꼭 맞잡은 의료기관들이 노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는지 조목조목 짚어낸다. 평균적인 근력이 없는 사람은 열지도 못하게 만든 약병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나이가 많은 환자라 분명 파킨슨 병 증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지만 알고 보니 무분별하게 처방된 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을 없애려고 또 엉뚱한 약을 처방한 바람에 얻은 부작용이었던 사례까지 다양하면서도 믿기 힘든 사례들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태어난 이상 나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갖고 생각해볼 만한 의료계와 사회 전체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다.

<목차>

수정 - 저자의 말

탄생

1. 생명

아동기

2. 영아: 기억 / 교훈

3. 유아: 역사 / 질병 / 가정

4. 아동: 집 / 부활 / 혼란 / 표준 / 기타

5. 10대 초반: 평범함 / 차이점

6. 10대: 진화 / 뼈딱함 / 활기 / 격차 / 선택

성인기

7. 청년: 트라우마 / 현대사회 / 주입 / 실수 / 자신감 / 수치심 / 편견

8. 성인: 망각 / 언어 / 직업 / 거리 / 가치 / 진실 / 생물학 / 옹호 / 외부위탁 / 열정

9. 중년: 단계 / 도움 / 특권 / 복합성 / 연소 / 섹시함 / 환멸 / 우선순위 / 공감

10. 시니어: 나이 / 병리학 / 소통 / 자유 / 배경설명 / 수명 / 아이들이 만질 수 없는 물건 / 교정

(이하 생략, 총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루이스 애론슨(Louise Aronson)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학교수이자 『A History of the Present Illness』를 쓴 저술가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워렌윌슨 칼리지에서 문예창작 예술석사 프로그램을 마쳤다. 미국 노인병학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임상교사 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푸시카트 상 후보로 네 차례 선정되었다.

제목 : THE DEATH OF POLITICS

가제 : 정치는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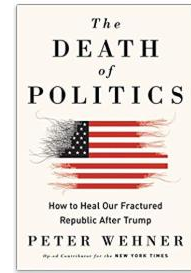
저자 : Peter Wehner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9년 6월 4일

분량 : 272쪽

장르 : 정치



*** 공화당 출신 미국 전 대통령 세 명을 보필한 정치인, NYT 정치 논평가가 밝힌 미국 정치의 현주소, 미국만의 독특하고 고귀한 정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나라는, 어떤 국가든 정치적 관점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까지 공화당 출신 대통령 세 명의 행정부에서 일했던 베테랑 보수 정치인이자 뉴욕타임스 정치 논평가인 저자는 미국의 현 정부를 이렇게 표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것 없이 수많은 미국인들이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정치를 향한 좌절감과 배신감, 이런 재앙에 가까운 사태를 빚은 정치 자체에 진절머리가 나서 등을 돌린 유권자들에게 저자는 망가진 정치의 현재에만 너무 주목하지 말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트럼프 정부를 향한 신랄한 비판에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는 고사하고 국민 생활을 좌우하는 사소한 사안조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끝없는 다툼에 한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저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보편적인 시민의 희망을 무너뜨린 지금의 이 절망을 이겨내지 않는다면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리더의 희생양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역사적 성취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과연 이 지경까지 이른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저자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미국 정치 상황도 절대 통제 불가능한 비극이 아니며, 잘못된 것들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저자는 역사적으로 큰 시련을 이겨낸 사례들과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고통스럽게 습득한 교훈을 이 책에서 상기시킨다. 대통령과 의회, 대법원 어느 쪽에서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진 권리는 옹호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까지, 가장 기초적이지만 다 사라진 것 같은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다양한 시도가 지금처럼 큰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과거 더 많은 경우 그랬듯 새로운 도전이 크나큰 성공과 번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한다. 정치를 향한 혐오감과 증오심을 내려놓을 때, 힘들게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의 가치와 고귀함을 깨달을 때, 그리고 정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하향세로 향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저

자가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다.

현재 상황이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나라 전체가 불치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저자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지난 수 년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실수한 바람에 그 결과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으로 봐야 하며, 프로 운동선수가 특정 시즌에 갑자기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처럼 더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이를 토대로 시민을 대표하도록 선출된 정치인들에게 제 몫을 하라고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정치도, 국가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밝힌 책이다.

<목차>

서문

1장.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2장. 정치란 무엇인가

3장. 정치 그리고 신념

4장. 말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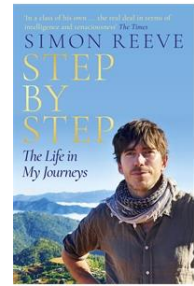
5장. 중도와 타협, 공손함의 예찬

6장. 희망은 있다

<저자 소개>

피터 웨너(Peter Wehner)는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정치에 관한 논평을 기고해왔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 세 명의 집권 시절에 행정부에서 근무하며 미국 정치권의 현황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길러 왔다.

제목 : STEP BY STEP
가제 : 세상으로 한 걸음씩
저자 : Simon Reeve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8년 9월 6일
분량 : 336쪽
장르 : 회고록 / 여행기



-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 슬로베니아 판권 계약
- ★ 2019 에드워드 스탠포드 어워드(Edward Stanford Award) 결승 진출작
- ★ “훌륭한 여행자들이 모두 그렇듯, 저자는 전염성 강한 열정으로 탐사를 해 나가면서 지금 와 있는 나라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매혹적인 동시에 너무나 즐거운 일임을 깨닫게 한다” - 「데일리 텔레그래프」

여행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그것이 여행의 큰 매력이라고 하지만, 버르고 별려서 떠난 여행지에서 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그 여행이 홀로, 또는 가까운 사람과 사적으로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수 개월 전부터 철저히 계획된 업무이고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이 배정된 일이라면? 하지만 이런 외적인 부담감보다도 이 일이 애초에 시작된 이유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싶다는 자신의 뜨거운 열정에서 시작됐다면, 과연 쉽사리 여행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여행을 끝내기 위해 어디까지 희생하고 참을 수 있을까? BBC에서 바로 그런 다큐멘터리와 TV 시리즈를 제작해온 저자는 120개국에 넘는 나라를 두 발로 직접 찾아가서 겪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이 책에서 생생하게 들려준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는 그의 기록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만큼 장대했던 풍경부터 코 앞에서 날아다니는 총알을 피해 다녀야 했던 아찔한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산을 걸으며 느낀 암담함, 그리고 스파이로 몰려 억류된 웃지 못할 사연까지 흥미로운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가 정글이며 사막, 바다, 산까지 가리지 않고 찾아간 이유는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외면당한 장소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존재하는 지도 몰랐던 보석 같은 숨은 장소들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그의 열정 때문임을 그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런 열정이 저자의 목숨을 위협했던 수많은 순간도 만날 수 있다. 적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독특한 기후와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의 촬영이 막 시작된 2006년의 어느 날은 당시 아프리카 대륙을 무섭게 휩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위험에 시달려야 했다. 목적지로 향하는 기차가 이틀에 한 번 꼴로 오고 원

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장면을 찍으려 해도 날씨 때문에 다 포기해야 하는 정도의 고생은 아무 것도 아닌 콩고에서 머물던 그 때, 저자가 포함된 촬영 팀은 에볼라의 맹위에 도로 여행을 포기하고 비행기로 가장 위험한 지점을 건너서 이동하기로 했다. 그런데 출발 전날 밤, 저자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다 미친 듯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 피가 섞여 나온 것이다. 분명 에볼라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욕실에 쓰러져 기절하듯 잠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내린 결단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적도 지역을 심층 취재한다는 이 기획이 방송국에서 이미 큰 호응을 얻으며 승인을 받아 황금 시간대에 편성까지 마친 상황이기도 했지만, 취재가 시작되고 아프리카 곳곳을 여행하는 동안 이미 저자는 반짝이는 햇살처럼 환하고 밝게 살아가는 지역민들과 이들의 소박하고 특별한 삶에 매료됐기 때문이다. 과연 저자는 일어서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계획된 촬영과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21편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고, ‘잃어버린 계곡’이라 불리는 험난한 산세를 해맨 아슬아슬하고, 감탄하고, 위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보여준다. 과장되지 않은 담백한 글이 더 흡입력 있게 다가오는 인상적인 여행기이자 회고록이다.

<목차>

1. A 팀
 2. 미스터리 투어
 3. 미스터 G. 라프
 4. 다리에서 만난 소년
 5. 잃어버린 계곡
 6. 문 앞의 발자국
 7. 위키토키와 쌍안경
 8. 탐
 9. 슬픔
 10. 9/11
 11. 탄저병, 그리고 캐비어
- (이하 생략, 총 21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사이먼 리브(Simon Reeve)는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을 여행하며 BBC 시리즈를 제작했다. 원월드 브로드캐스팅 트러스트 상(One World Broadcasting Trust Award)을 비롯해 왕립 지리학회가 수여하는 저명한 상인 네스 어워드(Ness Award), 영국 트래블 프레스 상(British Travel Press Award), 트래블 미디어 어워드(Travel Media Awards)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제목 : EATING TOMORROW

가제 : 내일의 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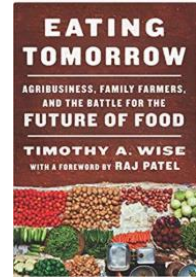
저자 : Timothy A. Wise

출판사: The New Press

발행일: 2019년 2월 5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과학(식품과학) / 환경



- ★ “전 세계에서 들고 일어난 소규모 농민들에게서 발견한 희망을 전한다” – 북리스트
- ★ “미래의 지구 식량 문제를 진지하게, 적시에 다룬 책” – 커커스 리뷰
- ★ “미래에 찾아올 식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을 막 한 푼까지 털어가는 다국적 기업들의 계획 사이에 형성된 엄청난 단절을 보여주는 책” – 『Foodopoly』의 저자 웨노나 하우터

2050년이면 세계 인구가 9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식량 문제만큼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 문제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날로 증대되어 농작물 생산량을 예측하거나 마음대로 바꾸 늘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전 세계 기업과 전문가들이 나서 농업을 산업화하는 일에 매진하고 막대한 투자를 실시해 왔다. 일반인들도 익히 잘 아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농업에 쉽게 침투한 것도 미래 식량문제의 해결이라는 부정하지 못할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다. 그런데 최첨단 과학기술과 새로운 기술, 도구, 전략으로 농업을 완전히 바꾸는 것만이 최선일까? 재래식 농업은 무조건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일까? 과학의 발전이 이전까지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부분도 많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토지, 식량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알리는데 앞장서온 저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농업 지역을 비롯해 아프리카, 멕시코,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를 찾아가 직접 확인한 결과, 미래 식량 역시 화려하고 번듯한 최신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보여준다.

오직 생산성과 더 많은 생산량을 목표로 기업들이 손을 뻗친 전 세계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은 마치 우리가 먹고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떠들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식품의 70 퍼센트 이상이 수억 명에 이르는 소규모 농민들의 발과 논에서 나온다. 연구결과와 이론으로 무장한 도시의 ‘전문가’들과 달리, 평생을 밭에서 직접 씨를 뿌리고 계절마다, 날씨가 변할 때마다 그에 맞게 작물을 돌보는 방법을 온 몸으로 익혀온 농민들은 기후변화가 몰고온 당혹스러운 변화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큰 자본금이 나 설비도 없고 단순한 도구가 전부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올 해 농사는 물론 내년 농사에서도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아는 농민들의 지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성과로 증명되고 있다. 저자는 농민들이 급작스러운 기후변화 이후에

농지의 환경을 새롭게 바꾸고 생태학적으로 자연의 방식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토종 작물의 다양성을 지키는 기술을 어떻게 마련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수확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이런저런 기술이 들어간 외국 종자 혹은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농사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더 큰 수확을 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사례를 보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깨우침을 얻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저자가 전하는 이 놀라운 사례들을 보면 왜 멕시코의 옥수수 농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 소규모 농업인들이 몬산토 같은 기업이 내세우는 최신 기술과 새로운 품종을 철저히 반대하는지, 납득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과 식물로는 코 앞으로 다가온 식량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농업의 본질, 식량 주권,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목차>

서문 / 1. 머리말

1부. 아프리카로: 새로운 식민주의

2. 말라위의 기적과 아프리카 녹색 혁명의 한계
3. 아프리카 토지 수탈의 성쇠
4. 땅이 남아도는 곳에서 땅을 잃은 농민들: 잠비아 옥수수 농업의 역설

2부. 문제의 근원

5. 아이오와, 그리고 미국의 옥수수 정책
6. 식품 위기에 기름을 붓는 행위
7. 멕시코 옥수수, 에덴의 정원을 침략한 몬산토

3부. 식량에 대한 권리를 팔아 치운 사람들

8. 멕시코 가족 농민들을 향한 NAFTA의 공격
9. 위선적인 거래: 인도 vs. 세계무역기구
10. 결론. 미래의 식량을 위한 전쟁

<저자 소개>

티모시 A. 와이스(Timothy A. Wise)는 스몰 플래닛 연구소(Small Planet Institute)의 선임 연구자이자 터프스 대학교 글로벌 개발환경연구소의 선임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Confronting Globalization』, 『Popular Resistance in Mexico』가 있다.